

무라야마와 일본정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을 중심으로

안 입 수*

目 次

- I. 들어가기
 - II. 아시안 아메리칸의 위상
 - III. 작품에 반영된 일본정신
 - 1. 명예심
 - 2. 절대적 복종의 의미에서의 사무라이 정신
 - 3. 야마토 다마시이
 - IV. 맺음말
-

I. 들어가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아시아인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 1세대의 희생 위에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한 아시안 아메리칸 2세와 3세, 4세들의 활약에 힘입어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문화를 비롯한 아시아적인 것의 관심이 미국인들 사이에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미국에서의 사회적 성공이 다른 어떤 대륙에서의 이민자들보다 두드러진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학 분야에서도 80년대 이후 아시아계를 비롯한 소수 민족 출신 작가 또는 소수민족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일종의 유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조류는 학계의 주류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서의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 관동대학교, 영문학

미국과 일본에 맞먹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전망이고 보면 중국의 정치적 입지의 강화와 경제규모의 확장,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지지에 힘입어 머지않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예상되는 일본의 세계 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문학에서 첫 번째 흔한 주제는 진한 가족관계와 성별 구조로부터, 그리고 미국이라는 신세계에서의 투쟁과 고독이라는 공통된 경험으로부터 나온 특정한 동아시아적 세계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문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다. 이민 2세대, 3세대인 아이들은 종종 부모들의 기대를 거부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생각하듯 그저 단순하고 낮은 지위에 만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사슬을 풀고 보다 나은 자녀의 삶을 위해 미국으로의 모험을 감행한 용기 있는 인간들이다. 그 결과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은 이중적인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모습을 그린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작가들이 쓴 작품 속의 엄마와 딸의 관계는 에이미 탄의 작품에서처럼 종종 가족적인 갈등 못지않게 성에 대해서도 갈등 구조를 보인다.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일련의 연속적인 주제로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적인 전략 양식으로도 표현된다. 시나 소설에서 의식의 중심에서 있는 사람이 독자에게 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그의 시점으로 사물을 판단하며 언어의 선택 또한 중심인물의 선택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부모가 영어를 모르는 이민인지 아니면 이중 언어 사용자인지에 따라 이야기 전개는 달라지며 자녀들의 가치관이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가 부모와 동일한지 크게 다른지에 따라서 독자에게 주는 영향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문학이라는 말도 이민자들이 자리 잡은 지역에 따라, 또한 그들이 따라가야 할 언어와 주류사회의 문화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존 오카다(John Okada), 도시오 모리(Toshio Mori), 에이미 탄(Amy Tan), 그리고 맥신 홍 킹스턴(Maxin Hong Kingston) 등과 같이 미국 서부에 배경을 둔 아시아인 아메리칸 문학과 하와이를 기반으로 하는 무라야마(Milton Murayama), 야마나카(Lois-Ann Yamanaka), 게리 팍(Gary Pak) 등의 작품들은 언어 사용과 주류사회의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하와이에 온 아시아 이민자들은 하와이 원주민의 구어체적인 영어 사용과 본토인의 영어를 함께 받아들여야 했으며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

국 본토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원주민의 문화와 전통을 익혀야 했다는 점에서 아시아인 아메리칸 문학의 지리적 거리는 그만큼 확장되어야 하겠다.

1957년 발표된 일본계 미국인 존 오카다(John Okada)의 『노-노-보이』(*No-No Boy*)를 시작으로 중국계 미국인 에이미 탄(Amy Tan)의 『행운 클럽』(*Joyluck Club*)은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원어민』(*Native Speaker*)으로 이미 주목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이창래는 2004년 *Aloft*의 출간으로 『뉴욕 타임스』에 “당신이 놓쳤을 수 있는 훌륭한 책 여섯 권”의 목록에 포함되고 『뉴요커』 지로부터는 “40세 미만의 대표적인 미국작가 20인”으로 평가되면서 아시아적 한계를 벗어난 완전한 미국작가로 미국문단에 자리 잡고 있다.²⁾

아시아인 아메리칸 문학의 출발은 아시아 출생인 이민 1세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간의 갈등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인 아메리칸 문학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태어난 부모를 둔 이민 2세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대부분이다. 『행운 클럽』, 『원어민』, 『노-노-보이』는 이런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고뇌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특히 『노-노-보이』는 2차대전 말기의 정치적 긴장 때문에 불합리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일본인들의 처지를 고발한 작품이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간주되어 1942년 포로수용소에 갇혀 격리 수용되었다. 이에 일본계 미국 이민들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모든 재산을 빼기고 열악한 수용소에서 거의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되었다. 수용된 사람 중 3분의 2가 이민 2세대였다. 비록 1988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1인당 2만 불씩의 배상금이 지불되기는 했지만 노인과 어린이까지 감금했던 이 일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말해준다.³⁾

『일본인 2세 딸』(*Nisei Daughter*)과 『노-노 보이』를 쓴 모니카 소네(Monica Sone)와 존 오카다(John Okada)와 마찬가지로 무라야마 역시 대표적인 일본계 미국인 작가로서 일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완전한 미국인이 되려는 2세의 고통의 과정을 묘사한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All I Asking for Is My Body*)으로 일본계 미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알지 못하는 보통의 미국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2) 『조선일보』, 2005년 4월 27일.

3) 장태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책세상, 2004. p.113.

주었다(『아시아계 미국문학의 길잡이』 190, 174-175). 이 자전적 소설은 오야마(Oyama) 가의 2세인 토시오(Toshio)와 키요시(Kiyoshi) 형제가 할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은 아버지와 갈등 끝에 결국 키요시가 일종의 도박(주사위 노름)에서 돈을 땀으로써 부모의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작품을 통해 무라야마가 다른 일본계 미국작가들과 달리 작품 속에서 간접적으로 일본정신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인 키요시의 서술과 3인칭으로 전개되는 가족 간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대한 작가의 견해에 공감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을 통해서 무라야마가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일본정신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한다.

II. 아시안 아메리칸의 위상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명칭은 아시아로부터 미국으로 온 이민자, 피난민, 망명자들을 일컫는 혼합된 표현이다. 최근에까지도 이들은 원래 고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노년기에 들어 그들의 나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 3세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오거나 이민 왔던 1세 교포들이 다시 오는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를 지낸 임어당이 은퇴 후 대만으로 돌아간 것은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임어당은 지금의 중국계 미국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중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썼지만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아시안 아메리칸 작가로 인정받지 못했었고 그저 아시아 작가로만 구분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로시 왕(Dorothy Wang)은 「아시아인의 해외 이주 지역에 대한 분포연구」(“Mapping Studies in the Asian Diaspora”)라는 논문에서 그녀를 포함한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익숙하다고 말한다.⁴⁾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은 다른 미국인들이 그들

4) Dorothy Wong, “Orientations: Mapping Studies in the Asian Diaspora” *Journal of*

을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로 간주하여 ‘미국적이 아니라’ 고 추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아시안 아메리칸을 미국에 갖 도착한 아시안인과 혼동함으로써 아시안 아메리칸의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왕은 지적한 것이다.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과 달리 아시안 아메리칸을 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차별은 1776년 미국 독립 직후 1790년 제정된 미국최초의 귀화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의 내용은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유인인 백인으로 한정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고 밝힌 미국헌법은 미국시민을 백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럽에서 들어온 이민 이외의 라틴계나 인디언, 그리고 아시아인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건국의 시초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또한 노예로 살던 흑인은 아예 시민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도 않았던 미국의 헌법은 미국이 인종차별 국가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노예해방이 있기 직전인 1857년에 나온 판례(Dred Scot Case)에 의하면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열등한 인종이므로 미국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흑인은 물론이고 아시아인과 라틴계를 포함한 유색인은 법적으로 열등한 인종이므로 미국시민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통적으로 유럽 이민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으로의 이민은 더 이상 유럽인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고 오히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으로부터의 이민이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과는 달리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의 3분의 2이상이 최근에 미국에 왔다는 사실 즉 아시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이 다르며 이 사실은 200년도에 나온 미국 인구 통계국의 자료에 의해서 입증된다.⁵⁾

Asian Studies vol. 5. iss. 3. October, 2002. p.270.

5)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책세상, 2004. p.126.

[재미 아시아인 인구수]

	1960	1970	1980	2000
일본인	473,170	591,290	700,747	936,000
중국인	236,084	435,062	806,747	1,440,000
필리핀인	181,614	343,060	774,640	1,783,000
한국인	자료 없음	69,130	354,529	1,092,000
베트남인	자료 없음	자료 없음	261,714	830,000

백인도 흑인도 아닌 아시아 이민들은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미국서부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면서도 백인들에게 착취와 차별을 받아왔다. 값싼 노동력으로 환영받던 중국인들은 캘리포니아 금광 발견 이후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백인들의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1882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으로 이민이 금지된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정책에 맞서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출생증명서가 불타버린 것을 기회로 삼아 그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고 속여 중국에 있는 부인과 아들을 데려오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고 장태한은 밝히고 있다.⁶⁾

그렇지만 앞으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주도권이 점차 3세, 4세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사회에 동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정부의 고위직을 비롯하여 미국사회의 지도층에 진출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비율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Ⅲ. 작품에 반영된 일본 정신

1. 명예심

무라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의 대화와 일본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1세와 2세간의 대화를 이끌어 가는 중에서 무엇인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오면 반드시 일본적인 정신과 미덕을 바탕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어린 시절 키요시는 부모를 창피하게 한다는 이유로 마코토

6)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책세상, 2004. p.61.

와의 교류를 제지당한다. 아이의 선택보다는 부모의 입장을 우선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키요시는 미국인으로의 자세를 배우는 대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인으로 교육된다. 마코토와 놀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마코토의 집에 간 날의 키요시의 기억이다.

그 날 밤 나는 미트를 보러 간다고 말하고는 마코토의 집으로 갔다. 가는 길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계속 생각했다. 마코토네 식구들은 어딘가 우스운 점이 있긴 했다. 그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으로 우리에게 다른 나이 든 일본인들이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와이 원주민들과 백인들만이 차를 가지고 있을 때 모델 티(Model T)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더 우스웠다. 그녀는 다른 일본 엄마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흰 대낮에도 립스틱을 빨갱게 바르고 다녔다.⁷⁾

어머니가 마코토와 놀지 말라는 이유는 키요시가 마코토네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키요시를 거지이며 건달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부모를 거지, 그리고 빈둥거리는 건달로 본다는 이유에서이다. 부모를 창피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의지를 따라야 좋은 아들이라는 지극히 일본적인 생각에서이다. 거지와 건달은 일본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코토의 부모가 일본인의 가치로 볼 때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이유가 더 크다. 마코토의 어머니처럼 생활을 위해서일지라도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 오야마를 비롯한 일본인의 가치관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명예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신을 서구사회에 알리는데 전념한 이나조(Nitobe Inazo)는 『무사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개인의 명예심이 일본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젊은이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부나 지식이 아니라 명예다. 많은 젊은이는 자기 집의 문지방을 넘으면 세상에 나와 이름을 이루기까지 다시는 그 문지방을 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또한 자기 아들에게 큰 희망을 거는 많은 어머니는 아들이 금의환향할 때까지 아들과의 만남을 거부한다.⁸⁾

7)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p.9-10.

8)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p.71-72.

명예를 중히 여기는 일본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할복을 들 수 있다. 할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절도 있게 행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의 의식을 거행 하듯 형식을 중요시한다. 할복은 무사계급의 특권으로 하층민들에게는 할복이 허락되지 않았다. 할복자가 배를 가르면 뒤에 대기하고 있던 카이사쿠가 목을 쳐주는 형식으로 거행된다. 노성환은 할복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할복을 강력한 의사전달의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할복은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할복의 의미는 남이 보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은 자기의 명예를 지킴에 있어서 할복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영국 신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결투에 있어서도 집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친한 친구나 하인 앞에서 결투를 하는 것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비하면 한국인은 군주로부터의 사약을 제외하면 억울하게 훼손된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나 민중정공처럼 한일합방에 절망하여 목숨을 버릴 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음독 또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일본인의 명예 지키기는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노성환은 그의 논문에서 일본인의 할복은 남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사전달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죽음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지켜 봐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담겨있다. 그것은 할복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는 배를 그어 내장을 드러내고 죽는다.⁹⁾

이렇게 보면 일본의 할복 문화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명예 자체를 지킨다는 의미는 퇴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절대적 복종의 의미에서의 사무라이 정신

토시오는 아버지가 그를 싫어하는 이유가 사무라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권투 시합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누는 형제의 대화에서 토시오는 사무라이정신을 아직도 이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요구에 맞출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토시오를 사무라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무

9) 노성환 「한국 할복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제14집, 2002. pp.253-254.

조건적인 복종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사무라이는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위해선 무슨 일도 하는 절대 복종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불합리하게 여기는 토시오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사무라이가 아닌 것이다. 아버지 자신도 말없이 그의 아버지(토시오의 할아버지)의 빚을 갚았고 그의 아버지 역시 그의 아버지(토시오의 증조할아버지)의 빚을 갚았는데 토시오가 반발을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진 날보고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하셔. 내가 보기엔 지금도 아버지가 엄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땀 정말 무서웠어. 넌 운이 좋은 거야. 내가 너 좋으라고 아버지질 부드럽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넌 맘대로 아버지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살지.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에게 맞았을 텐데. 나도 노력은 했지만...아버진 날보고 울보래. 난 사무라이가 아니라는 거지.¹⁰⁾

여기서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왜 사무라이에 비교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일본인의 마음속에 사무라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 일본사』에 의하면 사무라이는 원래 ‘사부라우모노’라는 말에서 왔으며 이 말은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헤이안(平安) 시대에 북륙(北陸)지방의 호족 도시히토(藤原利仁) 장군이 수도에 올라가 모토쓰네를 섬긴 경우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¹¹⁾ 그 지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는 대신 모시는 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는 주종관계가 주군과 사무라이의 관계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무라이는 결코 무사로서 명예스러운 말은 아니지만 당시 지방의 호족들로서는 중앙 귀족의 수족노릇을 하는 것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¹²⁾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요구를 사무라이처럼 그냥 당하고 있기 싫다고 말하는 토시오는 미국적인 가치의 소유자로 보여지며, 부분적이지만 부모의 논리에 동조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키요시는 일본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형제의 대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강력한 우애를 간직하는 이민 2세대의 집안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아버진 언제나 좋은 사람 역할만 하고 난 맨날 손해만 봐. 아버진 날 산 채로 가죽 벗기려 하고 난 사무라이처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뿐만 아냐,

10)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p.46-47.

11) 김희영 『이야기 일본사』 청아출판사, 2004. p.70.

12) 김희영 『이야기 일본사』 청아출판사, 2004. pp.69-71.

만 집도 마찬가지로야. 모두 잘못이야. 아무리 빛을 갠고 또 갠아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걸. 그러면서 그들은 날 나쁜 놈 취급을 하지. 그들은 내가 좋은 놈이길 바래, 그래야 날 산 채로 파문을 수 있거든. 난 그럴 수 없어. 입 다물고 있을수록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 엄만 아버질 마치 도노사마처럼 대하지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인데 어째서 기분 나쁘시다는 거지? 언제나 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책임자이고 난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못 하는 거람. 난 내 식대로 할 거야.¹³⁾

그러면 얼마동안이나 부모를 도와야 하느냐고 다시 토시오는 대들지만 어머니는 동생들과 함께 부모를 위해 일한 결과 할아버지가 빛을 갠으신 것을 들어 아버지를 부모의 명예를 회복시킨 훌륭한 아들이라고 추켜세우지만 토시오는 자식이 번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 할아버지를 도둑으로 부른다. 부모를 위한 희생을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어머니의 일본식 교육은 토시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얼마동안 일하셨나요?”

“네 아버진 불평 한 마디 없이 12년 동안이나 네 할아버질 도우셨다.”

“할아버진 도둑이세요.”

“아버지 앞에선 그런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마라.”

“할아버진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 둘까지 12년 동안 부려먹고 번 돈을 몽땅 들고 일본으로 가 버리셨잖아요.”

“할아버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빛을 모두 갠으시려 한 것이야. 다른 가게를 열기 위해 그 돈이 모두 필요하셨던 건 아니지.”

“그래서 몽땅 잃으신 거죠. 그렇게 하신 대가로.”

“누구도 지진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이젠 아빠를 빛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기 원하시네요.”

“걱정마라, 우린 네 신세 앓질 테니. 키요시가 우릴 도와 줄 거다.”¹⁴⁾

일본인들의 부모에 대한 복종은 직속상관에게의 절대적인 복종으로 확장된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벌일 때 일본인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을 이간시키는 농장주의 계략대로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필리핀 노동자들의 빈 노동력 대신 좀 더 인상된 임금을 받는데 만족하며, 심지어 키요시를 비롯한 일본 아이들까지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13)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47.

14)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30.

그 기회를 이용하여 용돈을 벌면서 즐거워한다. 하와이에 처음 왔다는 8학년 담당 교사 스누크(Mr. Snook)는 이런 일본인들의 상사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불합리함을 아이들에게 깨우쳐주려 한다. 스누크는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당장은 수긍하지 못할 지라도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일본인들의 태도는 근로조건에 역행하며 농장주의 의도에 끌려갈 뿐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한다. 스누크는 키요시와의 대화 속에서 아무런 비판도 없이 무조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비난한다.

“...농장은 너희들을 이간시켜 쉽게 통치하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편갈리고 통치되는 것에 행복해 하는 거구. 내 말 알겠어? 필리피노들은 파업을 하고, 너희들은 그 파업을 깨는 일에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말이야. 그건 큰 음모야. 그 대가로 농장은 너희들 임금을 올려주는 거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니? 네 코를 갉아먹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거니? 아니면 네 코가 얼굴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벌 기회를 주는걸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버는 것인지 모르겠니?”

“요점은 필리피노들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들에게만 임금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화내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가 아니고 단지 같은 필리피노이면서 비조합원에게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니?”

“글쎄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셔야죠.”

“그러고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니?”

“아뇨,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파업을 깨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유는, 맞아요, 하루에 2달러 버니까 좋아요.”¹⁵⁾

스누크는 아이들과의 대화를 개인의 일로 연장하여 부모가 나쁜 일을 시켜도 복종하겠다는 일본 아이들의 생각을 고쳐주려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비하여 토시오는 이미 부모 세대의 일본 정신에서 벗어나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토시오는 미국에 살면서도 언제나 일본에 돌아갈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부모세

15)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33.

대를 비판하면서 일본과의 연대를 단절해야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부모의 시각에서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책임감 없는 맏아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부모와 형 사이에서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키요시와 달리 이미 미국인으로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토시오는 함께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일본 소년이며 따라서 언제나 부모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린 남의 일을 걱정할 필요 없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건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우린 같은 농장에서 싸우고 있는 걸요.”

“우린 분수를 알아야 해 그래서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해.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아버지가 말했다.

“그게 일본인들의 문제예요. 그저 복종하기만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예요. 투쟁을 해야 인정받는 거라구요. 우린 그들과 싸워야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을 버려야 되요. 우린 일본과의 끈을 끊고 미국인이 되어야 해요.”¹⁶⁾

3. 야마토 다마시이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일본의 고대시대를 전체적으로 대화시대라고 하며 그 중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는 아스카시대(飛鳥時代)로 알려져 있다. 일본문화를 연구하는 재일 한국인 학자인 강자택에 의하면 대화정권은 4세기 중엽에 수립되었으며 그 이후의 서기 710년까지를 역사상 대화시대(大和)라고 구분한다. 화는 중국에서의 고칭으로 왜(倭) 즉 일본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다 미칭(美稱)의 대를 붙여 대화(大和)가 된 것이다. 보통 이 대화시대의 정신을 야마토 다마시이(大和魂)라고 하며 일본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말하기도 한다(2005년 5월 3일). 야마토 마음은 아침 햇살에 풍겨오는 산 벚꽃 향기라는 말로 압축한 모토오리 요시나가(本居宜長)는 일본의 풍토에서 태어난 자연의 소산인 벚꽃처럼 ‘야마토 다마시이’는 인공으로 재배한 나약한 식물이 아닌 일본의 풍토에 맞는 고유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인이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를 벚꽃의 아름다움에는 기쁨이 있고, 우아함에 있어 다른 어떤 꽃보다 일본인의 미적 감각에 맞기 때문이라고 한 요시나가의 말은 이후 일본의 국민정신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¹⁷⁾

16)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37.

17) 니토베 이나조(양경미, 권만규 역) 『사무라이』, 생각의 나무, 2004. pp.162-163.

‘야마토 다마시이’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 어떤 물리적, 물질적인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암시적 교육의 한 방법으로 처세상의 지혜나 능력, 정치적 재치를 의미한다. 또한 일본인의 독특한 사려분별을 의미하는 민족 고유의 정신, 기혼을 표현한 것으로 일본인임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장려된 표현이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일본어와 수신(修身)을 가르치는 아이들의 정신적 스승 다케모토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 정신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바로 무라야마의 의도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다케모토는 일본의 국민적 영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의 일화를 들어 히데요시의 말없는 인내심을 일본인의 미덕의 본보기로 본문에 상세하게 인용하고 있다.

히데요시가 낮은 지위의 가신이었을 때 그의 군주가 다른 군주를 방문했을 때 자기 군주의 신발을 보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추운 겨울날 그는 군주의 신발을 따뜻하게 보관하려고 기모노 속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군주가 나왔을 때 구겨진 신발을 보고 군주는 히데요시가 자기 신발 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그를 때렸으나 히데요시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 후에 그 일을 알게 된 군주는 말없이 참았던 히데요시를 높이 평가하여 승진을 시켰다.¹⁸⁾

일본인들이 야마토 다마시이에 강한 자존심을 느끼며 마찬가지로 일본적인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된 것은 에도(江戸)시대(1603-1868)에 일어난 국학 장려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 시대에 불교, 유교와 같은 외래의 사상을 배척하고 일본고전의 문헌학적 연구를 장려하면서 일본 고유의 문화, 사상을 규명하는 국학을 크게 발달시켰다.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일본인들의 이와 같은 자존심은 계속 이어지며 최근에는 네오콘의 정치 세력화에 힘입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무라야마는 독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을 시점을 택하여 야마토 다마시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야마토 다마시이에 대한 다케모토의 믿음은 무라야마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66.

일본인들은 아마토 다마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인내심, 성실함, 결심, 의무감, 검약, 호심, 그리고 근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본민족에게 어떤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도록 교육된다. 그들은 이름을 부끄럽게 말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교육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대양보다 깊다고 가르친다.¹⁹⁾

이러한 일본정신에 대한 교육방법의 하나로 다케모토는 아이들에게 부인과 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고 고민하게 한 다음 백인은 부인부터 구하겠지만 일본인이라면 주저 없이 하나뿐인 엄마를 먼저 구할 것이며 그것이 일본인의 미덕이라는 가치관을 확고하게 심어준다. 아이들 역시 이런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확실적인 교육이 무리 없이 2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다수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인의 부모에 대한 효성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 끈질긴 교육의 결과로 보는 편이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이러한 야마토 다마시에 대한 지나친 믿음은 때로 일본인은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무결점주의로 흐르기도 한다. 이것은 다케모토가 지적하듯 좁은 섬나라 근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야마토 다마시에 대한 맹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전시(戰時)를 비롯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으로도 분출된다. 이러한 일본인의 무결점성에 대한 믿음은 주로 이민 2세대인 토시오와 키요시보다는 1세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심하게 나타난다. 토시오는 남경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야만적인 학살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부끄러워하지만 아버지는 일본인의 잘못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난 그들(중국인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어째서?”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일을 알고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페페루 극장 뉴스영화에서 봤어요.”

“그 뉴스영화는 거짓말이야.”

“이런, 일본인들은 정말 눈 뜬 장님이군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도 거짓말이라

19)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65.

고 하다니! 그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20)

아버지는 토시오로부터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토시오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며 믿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토시오는 진주만의 공격을 알고 난 이후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 그 때부터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단스(서랍)속에 감추어 둔 일본 국기를 태우던지 땅에 묻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본 책들을 닭장에 감추고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땐 일본말을 하지 마시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가족의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 일본의 기습에 대한 아버지의 불신은 일본인으로서의 우월감이 지나친 나머지 잘못된 일까지도 부정하려는 그릇된 야마토 다마시이의 결과이다. 키요시는 존경하는 다케모토 선생님에게 그의 가르침과 실제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항의한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당신은 요시즈네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늘 해 주셨어요. 그들은 적 앞에 혼자 말을 타고 나가 그들의 이름과 계급을 큰 소리로 외친 다음 같은 계급의 적에게 앞으로 나와서 싸우자고 소리친다. 무사는 그의 말을 되돌리지 않는다, 그는 두 얼굴이 아니다, 두 번째 말은 필요 없다고 당신은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중 누구도 사무라이 집안 출신은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무라이의 행동을 기대하죠. 사무라이가 어떻게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할 수 있는 건가요?21)

키요시는 이어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혀 나쁜 일어난 적이 없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하며 다케모토는 당황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일본인의 단점 때문이라고 올바르게 답해준다. 일본인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순간순간 그들에게 최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행하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도(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 가능했을 것으로 설명하는 다케모토의 견해는 그가 편협하지 않고 치우침이 없는 냉정한 판단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며 일본인 집단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44.

21) Milton Murayama, *All I Asking For Is My Body*, pp.81-82.

IV. 맺음말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몸』 (*All I Asking For Is My Body*)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고찰해 본 결과 일본인은 명예심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이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며 사무라이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나 윗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야마토 다마시이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하여 이것을 후손에게 이어 나가게 하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나친 야마토 다마시이에 대한 믿음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를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일본사회를 이끌어 가려는 힘이며 작품에 언급된 것처럼 일본인은 개별적인 자신의 판단보다는 커뮤니티의 동의를 얻어야 힘을 얻는다. 진주만의 기슭이 있을 때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와이의 일본인 이민들은 오야마나 다케모토와 같은 커뮤니티의 지도자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오야마처럼 오래 전에 이민을 왔으면서도 여전히 일본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마코토네 부모나 오바반처럼 일찍이 미국적인 가치에 몰든 사람은 일본인 커뮤니티에선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무라야마는 일본인 2세 미국인, 특히 하와이의 이민으로서 미국인들에 대한 열등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일본인의 높은 도덕심과 무사정신을 내세워 상쇄시키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정신을 독자, 미국의 일반 독자들의 마음 속에 각인시킴으로써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일본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려 했다는 것을 아울러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은 일반 미국인 독자들에게 그 목적은 대부분 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参考文献】

- 김애주 외 공역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길잡이』. 서울: 한국문화사, 2003. 65
- 김희영 『이야기 일본사』. 서울: 청아출판사, 2004.
- 노성환 「한국 할복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14집, 2002.
- 신주백 책임편집, 해제. 일본교과서바로잡기편 『한국지성의 소리』 서울: 역사비평사, 2004.
- 이나조 니토베 『무사도란 무엇인가』. 심우성 역. 서울: 동문선, 2002.
- _____ 『사무라이』. 양경미, 권만규 역.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서울: 책세상, 2004.
- Cynthia, Sau-ling and Sumida, Stephen H. Ed., *A Resource Guide to Asian American Literature*(Seattle: Washington UP.) 2000.
- Kang, M. Agnes and Lo, Adrienne. "Two Ways of Articulating Heterogeneity in Korean Narratives of Ethnic Identity"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Baltimore: Johns Hopkins UP.) 2004. vol. 7. iss. 2. p. 93.
- Murayama, Milton. *All I Asking for is My Body*. A Kolowalu 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 Stephen S. Fujita, and Marilyn Fernandez. "Religion and Japanese American's Views of their World War II incarceration" *Journal of Asian Studies*.(Baltimore: Johns Hopkins UP.) vol. 5 number 2. June 2002. vol. 5. iss. 2. p. 26, 113.
- Shirley Geok-lin Lim. "Asian American Literature: Leavening The Mosaic"
<http://www.usa.or.th/services/docs/work29.htm>
- Wang, Dorothy. "Orientations: Mapping Studies in the Asian Diaspora"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 iss. 3. October 2002.

要 旨

One of the current changes taking place in the American society may be that minority communities are becoming into the main stream Americans. Among other racial origins, Asian Americans have accomplished a brilliant success in spite of the short history of Asian immigration to the States. It is true that most of the Asian Americans now living in the States were born in Asia, that is to say that two-thirds of Asian Americans are recent arrivals.

Asian American were mistreated unlike those who came from Europe. They have endured low wages and social prejudices, but they contributed much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n economy and the West. First Asian immigration started from China and was followed by Japan. The next group of Asian Americans came from Korea and Vietnam and other over Asia.

Milton Murayama is one of the leading Japanese Americans representing those Japanese who came to Hawaii. As a second generation Japanese American, he had described the lives of the sugar plantation laborers, mostly come from Asia. Before Murayama, there was John Okada who wrote *No-No Boy*. Here he described the delicate tensions that existed between Japan and America after the Pearl Harbor attack, describing the unjust imprisonment and resulted from replying no, no to the questions they've been asked.

Unlike most of the other second-generation Japanese American writers whose main theme was identity complex, Murayama seemed to propagate the Japanese spirit, especially *Yamato damashi*. Throughout his story, Murayama tries to be very careful not to openly praise the Japanese spirit. He criticizes and even warns the danger of the Japanese spirit including *Yamato damashi* through Toshio who always blames his parents and grandfather for leaving him a big amount of debt. But despite the critical perspective on the Japanese spirit, the author is seen to show high regard upon the Japanese spirit so that, without knowing, readers slowly come to accept Murayama's view and wave the Japanese flag.

キーワード：名誉心、絶対服従、ヤマト魂、サムライ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210-701)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 번지 관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電 話 : 033-649-7217
e-mail : mitralval@kwandong.ac.kr

K C I